

에도(江戸)시대 여성의 화장법과 두발양식 고찰

A Consideration of Feminine Beauty Care and Hairstyle in the EdoPeriod

주저자 : 안현순

광주보건대학 피부미용과 교수

An Hyun Soon

Dept.of Skin&Beauty, Kwangju Health Collage

공동저자 : 고정민

장안대학 스타일리스트과 강사

Koh Jung Min

Dept.of Stylist, Jangan Collage

* 본 논문은 2010년도 광주보건대학 교내 학술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서론

2. 에도시대 미의식

- 2.1 에도시대 문화전반에 나타난 미의식
- 2.2 에도시대 화장과 두발양식에 나타난 미의식

3. 에도시대 화장법

- 3.1 화장문화(化粧文化)
- 3.2 에도시대의 화장술

4. 에도시대 두발양식

- 4.1 전기(AD1615~1688)
- 4.2 중기(AD1689~1762)
- 4.3 후기(AD1763~1867)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일본 에도(江戸)시대 전반의 미의식은 사비(さび), 와비(わび), 가루미(かるみ), 시오리로 대표되는데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동시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아담하고 한적한 미와 품위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미의식은 화장을 통해 여성들의 화장법과 두발양식에도 적용되었는데, 특히 화장술은 문화의 내부 원인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의 문화가 서로 교차할 때, 이문화의 미의식에 영향을 받아, 미추의 기준이나 화장법이 변화하는 현상도 드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에도시대 화장법은 화장하는 개인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순서는 크게 씻기, 면도, 손발톱정리, 머리 묶기, 백분 바르기, 흑치물들이기로 이루어졌다. 특히 흑치물들이기는 고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 독특한 미의 기준이 국가 간 교류를 통해 후대에도 이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에도시대는 일본의 전통적 두발양식이 결정된 시기로 그 의미가 있으며, 각자 취향에 따라서 그 경향을 선택하고, 또한 다양한 양식과 특수한 형태를 고안해 내어 이를 다시 통일된 공동의 양식으로 유행되었다.

주제어: 에도시대 미의식, 에도시대 화장법, 에도시대 두발양식

Abstract

The general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Edo period of Japan is represented by Sabi, Wabi, Garumi and Siori, which sought for inner as well as outer beauty with a focus on elegant and quiet beauty and grace. Such consciousness of beauty also applied to women's beauty care and hairstyle through make up, and as far as beauty care concerned, it changed, on one hand, due to the inner cause of culture, but on the other hand, in not a few cases, the crossing of multiple different cultures also affected and changed the standard of beauty or beauty care. The beauty care in the Edo period proceeded in the direction of emphas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 who applied cosmetics with the general order of wash, shaving, finger and foot nail care, tying one's hair back, powdering one's face, and dyeing black. Especially, dyeing black, which had been popular in many ancient Asian countries, allows us to surmise that in those days, a unique standard of beauty was set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The Edo period has significance as a time in which Japan's traditional hairstyle was fixed. As such, each one selected the trend according to her taste thinking up diverse styles and special shapes, which was then made popular as unified, common style.

keyword: The general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Edo period, The beauty care in the Edo period, hairstyle in the Edo period.

1. 서론

화장법과 두발양식은 복식의장학적 견지에서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종교적 목적이나 신비한 힘을 빌려 재앙을 쫓거나 일으키려는 주술적 목적을 갖는다는 것이다.(杉本正年, 1995, p12) 대체로 경(頸)부위 아래화장의 역사를 명확하게 탐구할 수 있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시대 이후에 한정되어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화장은 존재했었다. 화장이란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 선천적으로 타고난 얼굴이나 몸의 표면에 안료 등을 바르거나 혹은 피부, 모발, 손톱 등 몸의 일부를 변형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행해졌는가가 밝혀지지 않으면 화장에 대한 연구는 화장한 모습의 결과를 나열한 것에 그칠 뿐 거기에 존재하는 미의식을 유추해내기란 힘들다.

역시 인간의 두발도 그 자체로서 중요한 체부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두식과 더불어 충분한 암시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의상과 더불어 복식이 가지는 제반기능, 즉 체온을 지키고 이성을 유혹하고 신분을 상징하는 등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추구해 온 의상 실루엣의 변화에 따라 그 때마다 다양한 화장법과 머리 형태로 대응함으로써 각각의 개별적 실루엣을 머리끝에서 발끝 까지 하나의 통일된 조형물로 완성시키는 기능을 지닌다는 것이다.

인류가 태동한 후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형성된 생활문화 속에서 의복과 함께 화장과 발형(髮型)은 인식되고 발달되었다. 즉, 생활전반에 내재된 미의식이 복식 뿐만아니라 화장법과 발형에도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연출되는 화장법과 발형이 나타나기 시작한 일본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여성의 화장법과 발형의 변천에 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일본 에도시대의 미의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일본 에도시대 전반의 미의식과 함께 여성들의 화장과 두발양식에 나타난 미의식을 고찰하고, 둘째 에도시대 화장법에 대해 살펴보고, 셋째 에도시대의 다양한 두발양식의 종류와 그 제작과정을 정리한다.

연구방법은 각종 문헌에 나타난 자료분석과 초상화, 벽화, 문헌 등에 나타난 시각자료를 병행하여 연구하였다.

2. 에도시대 미의식

2.1 에도시대 문화전반에 나타난 미의식

(1) 사비(さび)

‘사비(さび)’는 소재가 갖는 한적(閑寂)함 이라는 외적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작자의 내적심경, 관조적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대상의 내적 생명에 저촉하여 그 미를 파악하려는 정신을 말한다. ‘사비(さび)’는 단순히 허전한 정서가 아니고 아담한 미와 품위가 어우러지고 있다.(尾川正二., 1999, pp138-139)

사비(さび)의 특징	
1) 정적(靜寂)하다, 죽은 듯이 고요하다 :(환경이)조용하다, 허전하다. 곰곰이 생각에 잠긴다	
2)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어딘가 부족하고 허전하다 :(사람에 대해) 고독하고 허전하다, (경제적으로)가난하다	

[표 1] 사비(さび)의 특징

(2) 와비(わび)

와비(わび)는 한적한 정취로서 하이카이·다도(茶道)의 정신으로서 대표되고 있다. 한적(閑寂)·검소한 아취를 뜻하는 바와 같이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미적 생활을 말한다. 미적이념으로서는 사비를 따를 수 없으며 무로마치 시대부터 근세 초기에 걸쳐 확립된 다도(茶道)의 중요한 이념으로 되어 있다. 와비도 여정적(餘情的)인 동시에 장대하고 아름다운 미(美)나 우미(優美)를 감추고, 정적(靜寂)·한적의 경지에 있다는 점에서 사비와도 공통되는 것이 있다.(九鬼周造., 2001, pp52-53)

와비(わび)의 특징	
1) 쓸쓸하다. 적적하다	
2) 괴롭다. 고통스럽다. 한심스럽다. 무정하다	
3) 재미없다. 흥이 깨지다.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다	
4) 가난하다. 초라하다. 빈곤하고 쓰라리다	

[표 2] 와비(わび)의 특징

(3) 가루미(かるみ)

가루미(かるみ)는 표현을 가볍게 하고 보통 말로 읊는 것을 말한다. 사비의 경지에 도달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고 진지한 노력을 하게 된다. 그것이 가루미이다.

사비에서 가루미로의 전개는 중세의 ‘요염(高尙

한 아름다움, 상냥하고 품위있는 미)에서 ‘담박’으로의 전개와 같은 경위를 볼 수 있다. 내면적으로 보다 깊어진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담박미’가 불교를 매개로 하는 엄격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가루미’는 서민적 비속성을 띠고 있다.가루미는 눈 앞의 설경(雪景)을 소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실은 그 속에 오묘(奧妙)한 전통적인 풍아(風雅)가 본의로서 깃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루미(かるみ)의 특징
1) 요염에서 담박으로의 전개과정이다
2) 서민적 비속성을 띤다
3) 오묘한 전통적 풍아가 깃들어 있다

[표3] 가루미(かるみ)의 특징

(4) 시오리(しおり)

시오리(しおり)는 인사(人事)와 자연을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작자의 섬세함, 정취를 지닌 마음을 말한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꾸밈을 하는 작의(作意)를 피한 새로움을 추구하며, 보편성을 지향한다. ‘모습’과 ‘정’을 분리하지 않고 대상을 파악하려고 한다.(尾川正二., 1999, pp146-150)

시오리(しおり)의 특징
1) 섬세함과 정취를 지닌다
2) 새로움을 추구, 보편성을 지닌다

[표4] 시오리(しおり)의 특징

2.2 에도시대 화장과 두발양식에 나타난 미의식

화장에 관한 에도시대의 미의식은 ‘나카다카(中高)’ 즉 콧날이 오뚝한 잘생긴 얼굴이라는 얼굴 전체의 인상이나 백분과 검게 물들인 이,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얼굴 감추기 문화가 중심이었고 눈이나 입에 대한 미의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눈이나 입의 화장을 강조하는 현대의 미의식과 비교하면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성숙하지 못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세에 접어들 무렵 헤어스타일, 이른바 일본의 전통머리가 발생하여 발달함으로써 얼굴 전체를 노출하기 시작하자 에도시대에는 점차 일본적인 얼굴에 대한 미의식이 성숙되어 나갔다.

그 결과 에도시대에는 입술연지가 크게 보급되었고, 이마나 목덜미의 화장도 생겨났다. 일본인들의 입술연지는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명확한 자료가 발견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설로는 중국에서 전해졌다는 설과 스이코(推古)천왕 때 고구려에서 건너 온 담징(曇徵)에 의해 홍화씨가 전해지면서 사용했다는 설이 있다.

불 연지 역시 중세 이후 기록 『가이코쿠잡기(廻國雜記, 1487)』에 의하면 “얼굴을 바르는 연지 냄새가 골짜기에 스며드는, 일찌감치 넘는 화장 고개”라든가 또 다른 기록인 『오리타케센쿠(守武千句, 1540)』에 “불에만 연지를 바르기도 하고” 등의 표현에 보이는 점에서 불연지라 불리는 화장이 존재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에도시대에 접어들면서 『온나초호키(女重寶記, 1692)』에서도 “연지 같은 것도 볼, 입술, 손톱에 바를 때는 희미하게 발라야 한다. 아주 붉은 것은 천하여 술집 여자에 비유된다.”고 하여 옅은 화장을 좋은 것으로 여겼다.(무라사와 히로토, 2010, p83)

에도시대의 화장과 두발양식 역시 드러내는 듯 하면서 다시 감추고 입술연지나 불연지처럼 강조점을 두지만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꺼리는 등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와비, 사비, 가루미, 시오리적인 표현이 공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에도시대 화장법

3.1 화장문화(化粧文化)

얼굴에 색을 칠한다는 말은 용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을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화장은 타인의 시선에 영합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타인의 시선을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일견 순종의 의사표시처럼 보이지만, 화장은 때때로 공격적이다. 화장이 갖는 공격성은 명료한 목적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화장을 통해 용모는 다양하게 바뀐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화장술은 문화의 내부 원인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의 문화가 서로 교차할 때, 이 문화의 미의식에 영향을 받아, 미추의 기준이나 화장법이 변화하는 현상도 드물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백분을 분(粉) 또는 연분(鉛粉)으로 부른다. 이 둘은 각각 성분이 다른 원료로 만들어졌다. 후한시대(後漢時代) 유희(劉熙)의 석명(釋名) 사전에 의하면, 분(粉)은 쌀을 찧고 갈아서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를 빨갱게 물들여놓은 것이 정분(經粉)으로, 뺨을 화장할 때 사용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상고시대(上古時代)에는 쌀로 백분을 만들어 썼다. 또 다른 한 종류는 연분(鉛粉)

내지 호분(胡粉)으로 불렸다. 연분은 글자 그대로 연, 곧 납으로 만들었다. 육조시대(六朝時代)의 장화(張華)는 박물지(博物志) 생류(生類) 편에서 “주(紂)는 연석(鉛錫)을 태워서 분을 만들었다.”고 고 쓰고 있는데, 연(鉛)이 곧 납이므로, 결국 주왕(紂王, ?~ B.C.1122) 시절에 벌써 납을 태워 백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기록에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분의 성립연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후한서(後漢書) 제63권 이두열전(李杜列傳)에는 “호분으로 얼굴을 꾸민다.”는 구절이 나오고 있으므로, 연분은 늦어도 한나라 순제(順帝, 126~144년 재위) 치세기간에는 이미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張競, 2004 p32)

일본 에도시대에 사용한 백분과 연지의 사용은 중국에서 백분 제조법이 전래된 이후 납제의 백분과 수은제 백분, 쌀 등의 곡류 등을 이용한 가루분 등이 다양하게 생산되었다.

잇꽃을 원료로 하는 천연식물의 적색 색소인 연지는 멧을 내고자 하는 습관과 함께 사용되었다. 두 발에는 광택을 내거나 쉽게 머리를 묶을 수 있도록 식물에서 추출한 점액물질을 주로 사용했으며, 헤이안시대(平安時代)에는 한방사상에 따른 백발염색 방법 등이 일부 소개되었다. 아스카시대(飛鳥時代), 나라시대(奈良時代), 헤이안시대(平安時代) 전기에 이르기까지 상류계층의 여성들만이 화장을 할 수 있었다. 헤이안시대 전기이후에는 백분을 바르고, 눈썹을 뽑고, 치아를 검게 하는 전통적 화장법이 확립된 시대로서 이는 중국으로부터 ‘흰 피부가 아름답다’는 미의 개념이 전래된 볼 수 있으며, 볼에 사용한 연지 또한 백분에 섞어 사용하는 등 제조방법들을 터득하게 되었다.

에도시대 초기에 주로 사용된 백분은 중국에서 수입하였으나 이후 제조법이 전래되면서 국산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다양한 종류에 따른 미세한 분말상태로 가공됨으로써 새로이 조합된 백분이 그 시대의 유명한 가부키(歌舞伎)배우들의 이름이나 가부키라는 상표로 판매되었다.

잇꽃(紅花)의 홍(紅)은 중국어로 연지(燕脂)라고 하는데 잇꽃의 즙을 농축시켜서 연지를 만들기 때문이었는데 입술연지일 뿐만 아니라 볼 화장 등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중국에서 여성들이 언제부터 홍을 바르기 시작했는지는 여러 가지의 설이 있는데 분명하지 않다.

연지화장의 최초의 기록은 1150년경 중국의 은나라 주왕으로 중화고금주(中華古今注)에 의하면 “주

왕이 홍랍화의 즙을 엉기게 하여 연지를 만들었는데, 그 꽃이 연국(燕國)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름을 연지라고 불렀다. 또 연지는 눈에 생긴 조이를 고치고 동창(凍瘡)도 고치는데 누런 밀랍에다 연지즙을 개어서 붙인다.”고 전한다.(고경숙, 2004, p43)

입술연지가 에도시대까지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화장이라고 한다면 눈썹 화장은 에도시대 이전에 지배계급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던 것이 일반화된 예다.

근세에 접어들어 눈썹 화장은 사회적으로 귀족 계급의 전통적인 무가의 예법에 포함되어 간 것이었고, 일반적으로는 신분계급을 표시하는 것, 즉 눈썹을 밀어버린 것은 결혼을 했으며 아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치장으로 서 얼굴형에 따라 행해지기도 했다.

에도시대에 접어들면 온나오킨모즈이(女用訓蒙圖彙)에서 “볼에 연지를 바르는 것은 벚꽃송이에 비유한다.”고 한 것처럼 희미하게 바르는 것을 좋게 여겼다. 온나초호키(女重寶記)에서도 “연지를 볼, 입술, 손톱에 바를 때에는 희미하게 발라야 한다. 아주 붉은 것은 천하여 술집 여자에 비유된다.”고 하여 옅은 화장을 좋은 것으로 여겼다. 에도 시대 후반이 되면 불연지를 바르지 않게 되었다.(무라사와 히로토, 2010, p86)

3.2 에도시대의 화장술(化粧術)

에도시대의 화장술 연구를 위해 에도시대에 그려진 우키요에(浮世繪) 속 미인들의 화장화(化粧畫)를 통해서 화장의 법칙을 살펴보았다.

우키요에란 다양한 인물들과 풍경, 사회풍속 등 세상의 이모저모를 강한 대비감을 이루는 현란한 색채를 사용해 표현해낸 일본미술을 대표하는 전통 다색판화인데 가격이 저렴하여 일반 서민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장점 때문에 에도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이연식, 2009, p15)

화장술의 특징으로는 화장하는 사람의 특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검게 칠하거나 눈썹을 면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를 검게 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아이를 낳으면 눈썹을 없앴다(그림 1). 구체적으로 이를 검게 칠하는 것은 한젠후꾸(半元服), 눈썹 면도를 혼젠후꾸(本元服)이라 칭하였다. 화장의 법칙은 다음의 순서를 따랐다.

(1) 찢기

화장을 시작하려면 시간을 투자하는 행위가 중

요했는데 그 첫째가 씻는 행위이다. 이것을 화장의 일환으로 삼을지 아닐지는 이견이 있으나 씻는다는 행위는 그 자체가 독립된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씻는 행위로는 구중(口中), 신체(身體), 모발(毛髮)을 들 수 있다. 구중의 행위는 '이를 닦다' '입을 양치질하다' '혀에 생기는 이끼를 닦다' 등의 세 가지다.

에도시대의 사람들도 이를 닦았다. 닦는 도구는 이치개(이썬시개)를 사용하여 닦는 것이다. 이치개는 나라시대(奈良時代)에 불교와 같이 전래되었다고 한다. 입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불교의 계율 중 하나이다. "신사 참배 할 때에도 재계 목욕하고 입을 양치질하라."고 하여 신사불각(神社佛閣)의 경내에서 이치개와 치마분이 팔리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얼마 되지 않아 이치개의 사용은 승려에서 귀족에게 전해지고 헤이안시대(平安時代)에는 서민으로 전파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여성용 이치개는 주로 버드나무이고 남성용 이치개는 관목으로 만들어졌다. 房이치개는 이를 닦는 것 뿐만 아니고 이를 검게 칠하는 것에도 사용되었다. 이른 아침에 이를 닦는 것에 대해서는 도풍속화장전(都風俗化粧傳)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선 거울을 향하여 코털을 자르고 비녀(한 쪽이 귀이개로 되어 있음)를 사용하여 귀지를 없애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를 잘 닦는다. 이때 닦는 것은 후사이치개이고 이 사이의 찌꺼기를 없애는 것은 쓰마이치개이다."(陶 智子, 2005, p105)



[그림 1] 歌川国芳 「狂句尽」
(출처: 江戸美人の化粧術, 2005, p.74)

(2) 면도, 손톱 깎기, 머리묶기

화장을 하기 전의 준비단계는 면도행위이다. 면도의 범위는 눈썹과 나머지 얼굴, 그리고 목덜미이다. 얼굴은 주로 스스로 면도하고(그림 2), 목덜미는 남에게 부탁을 한다(그림 3).

눈썹은 스스로 할 때도 있고(그림 4), 남의 신세를 질 경우도 있다. 늦대야에 김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야에는 찬물이 아닌 끓인 물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는 여성이 목덜미를 씻는 그림이 게재되어 있다.

화장 행위의 마지막은 손톱을 깎는 것이다. 가위를 손으로 잡고 손톱을 자르는 행위는 에도시대에는 당연했다(그림 6). 여인의 발 앞에 있는 것은 손톱 깎기용 줄칼이다.

머리를 묶는 행위 역시 화장행위의 한 부분이다. 머리를 결발(結髮)하는 행위는 자신이 하는 경우 경우와 남이 해주는 경우가 있었다. 머리를 묶을 뿐 아니라 머리의 풀림 등을 빗이나 비녀로 고치고 있다(그림 7).



[그림 2] 歌川国貞 「当世道行ふり」
(출처: 化粧, 1992, p.116)



[그림 3] 歌川豊国 「新編金瓶梅」
(출처: 江戸美人の化粧術, 2005, p.118)



[그림 4] 歌川豊国 「江戸名所百人美女芝神明前」
(출처: 江戸美人の化粧術, 2005, p.116)



[그림 5] 歌川国貞 「教草女房形氣」
(출처: 化粧, 1992, p.120)



[그림 6] 歌川豊国 「江戸名所百人美女浅草すは丁」
(출처: 江戸美人の化粧術, 2005, p.123)



[그림 7] 鈴木春信 [勢田夕照]
(출처: 江戸美人の化粧術, 2005, p.125)

(3) 백분바르기

백분을 바른다는 것은 얼룩 없이 펴 바르는 것으로서 [그림 8]에서는 얼굴의 분을 천으로 닦아내고 있다. 에도에서는 분을 두껍게 바른다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천이나 종이로 눌러 밀어내고 닦아서 분이 연하게 보이게 했다. 목덜미에 금백분(襟白粉)을 바르는 행위는 분을 짙게 바름으로써 얼굴이 도드라져 곱게 보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조합(組合) 거울을 만들어 백분이 꼼꼼하게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그림 9). 얼굴의 백분이 질다면 에도에서는 일본족(一本足),

이본족(二本足), 윗 지방에서는 이본족(二本足), 삼본족(三本足)으로 불렸다. [그림 10]의 경대에는 큰 목단술이 얹혀 있는데, 이 술로 목덜미를 분칠하는 것이다.

에도시대의 오노쇼조(小野所町)는 미인의 대명사이다. 그림 속에서 왼손에 든 것은 붉은 질그릇 술잔이며, 귀이개를 비녀 대신 꽂고 연지를 비우고 있다(그림 11). 연지는 매우 고가의 화장품으로서 연지가루 한 돈 중 금 한 돈 이라 했다.(大原梨恵子, 2000, p23)

명소강호백경(名所江戸百景) 구형당오부교(駒形當吾婦橋, 安政四年, 1857)에는 선홍색으로 물들인 가로로 기다랗게 긴 깃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그림 12), 이 표식은 천초(淺草)의 구형(駒形)에 있었던 중도실백조(中島室百助)로서 연지와 백분을 취급하는 점포였다.(陶 智子., 2005, p125)



[그림 8] 溪斎英泉 「美艶仙女香といふ」
(출처: 江戸美人の化粧術, 2005, p.129)



[그림 9] 豊原国周 「艶姿化粧自慢」
(출처: 江戸美人の化粧術, 2005, p.132)



[그림 10] 歌川豊国 「江戸名所百人美女柳はし」
(출처: 江戸美人の化粧術, 2005, p.134)



[그림 11] 歌川豊国 「摸擬六佳撰」
(출처: 江戸美人の化粧術, 2005, p.136)



[그림 12] 歌川広重 「名所江戸百景 駒形堂吾孀橋」
(출처: 江戸美人の化粧術, 2005, p.136)



[그림 13] 歌川国貞 「江戸姿ハ契」
(출처: 江戸美人の化粧術, 2005, p.103)

(4) 흑치(黑齒) 물들이기

[그림 13]은 경대 앞에 앉은 여자의 무릎 앞에 낫쇠 대야가 놓여 있고, 대야에는 걸침쇠가 놓여져 있으며 그 위에는 이를 검게 물들이기 용기가 있다.

치흑수(齒黑水)의 제조법으로는, 우선 끓는 물에 불에 데운 쇠못을 담그고 엿, 누룩, 설탕 등을 담근다. 이 물을 병 같은 것에 넣어 밀봉하면 수개월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자가제(自家製) 뿐만 아니라 상품으로 생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흑치 물만 가지고는 검게 칠할 수 없다. 생약의 한 가지인 오배자(五倍子) 가루를 섞어서 사용한다.

메이지(明治) 6년 3월 황후가 솔선하여 흑치의 사용을 폐지하였고, 일반사람들도 차츰 이에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검게 하는 것도 서서히 사라져 갔다.(大原梨恵子, 2000, p.45)

4. 에도(江戸)시대 두발양식

에도시대의 두발양식은 전(前) 시대에 비해 그 형태가 화려해지고 다양한 장신구를 사용하는 등 많은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후기로 갈수록 미세한 부분까지도 차이를 두어 치장하였는데(코이케 미즈에, 노구치 히로미, 요시무라 케에코, 2005, p87) 이들의 형태를 잘 파악함으로써 복식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4.1 전기 (AD1615~약1688)

전국시대 이후 풍속도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고, 결발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은 각자 취향에 따라서 그 경향을 선택하고, 양식도 다양했지만, 칸에 이 무렵이 되어서 특수하고 그것도 개인적인 풍속을

고안해내고, 풍속통일의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1) 타테효우고(立兵庫)

셋츠노쿠니의 유녀들에게서 기인한 '카라와마게'의 변형머리형태(그림 14)로서 보급되기 시작해 寛文(AD1661~1673)경에는 유녀 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의 마게로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2) 코우가이마게(笄髷)

코우가이마게(그림 15)는 종래의 마게에 사용된 적 없는 코우가이를 사용해서 머리를 묶은 마게로, 그 기원은 상당히 오래되어, 무로마치 시대에는 이미 이 코우가이를 꽂아서 내린 머리를 묶는 경향이 여관(女官)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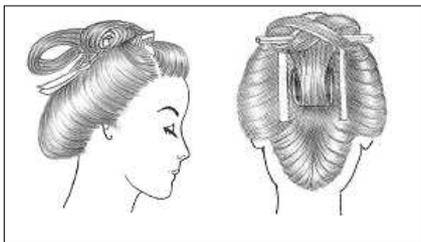
(3) 겐로쿠시마다(元禄島田)

天和(AD1681~1684)부터 元禄(AD1688~1704)에 걸쳐 매우 유행한 머리로 당시의 대표적인 머리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그림 16)

츠토는 전기에는 굵고 약간 둥그스름했지만, 점점 가늘고 길게 뒤쪽으로 구멍을 내어 왔다. 후에 이 모양을 '카모메츠토(갈매기상투)'라고 불리며 에도시대의 묶은 머리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다.



[그림 14] 타테효우고(立兵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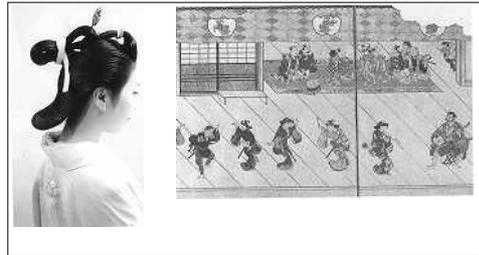
[그림 15] 코우가이마게(笄髷)

(4) 타마가와시마다(玉川島田)

타마가와시마다의 마게는 元文(AD1736~1741) 초경부터 유행했지만, 시마다보다 조금 연상

의 부인들이 좋아하던 신형의 머리였다. 앞머리는 낮게 끌어당기고, 귀밑머리는 그다지 덮지 않고 츠토도 낮게, 길이도 조금 줄이게 되었다.

나무빗, 막대 코우가이(棒笄) 즉 학다리 코우가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두통에 효험이 있다고 해서 호사가들이 무척 진귀하게 여겼다고 한다. 칸자시는 龜甲耳搔きが 붙어있는 것을 꾀었다.(그림 17)



[그림 16] 겐로쿠시마다(元禄島田)



[그림 17] 타마가와시마다(玉川島田)

4.2 중기(AD약1689~1762)

8대 쇼군 吉宗, 9대 쇼군 家重, 10대 쇼군 家治의 치세이므로, 享保부터 元文, 寛保, 延享, 寛延, 明和, 安永, 天明, 寛政에 이르는 70여년의 시기로 풍속계의 변동이 큰 시대였다.



[그림 18] 요코효우고(黄兵庫)

(1) 요코효우고(黄兵庫)

전기의 효우고마게를 옆으로 뒤집은 것으로, 고지식한 여성이 아니라 요염한 직업여성들이 했던 머리모양(그림 18)이다.

츠토는 살짝 부풀어있고, 귀밑머리를 부풀려 귀 밑머리 뒤쪽이 보인다. 이러한 부풀린 머리 형태를 정돈하기 위해서는 고래 수염이나 거북이껍질 등으로 만들어진 鬢張り라는 것이 사용되었다.

(2) 오카지(お梶)

바이마게(ばい鬘)라고 해서, 칸자시를 세우고 여기에 머리카락을 감아서 묶은 뒤 나머지를 바깥으로 뺀 것이다. 에도 전기에는 비스듬히 만들어진 마게가 중기에는 수직으로 다시 부흥했다고 보인다.(그림 19)

(3) 하루노부후우시마다(春信風島田)

宝暦(호레키; 일본 연호 중 하나), 明和(메이와; 일본 연호 중 하나) 무렵(AD1751~1772)에 길거리의 여인들이 묶어 유행했던 머리모양으로, 당시 전성했던 스키 하루노부의 풍속화에 자주 보인다.

머리모양의 특징은 도약하는 듯한 츠토인데 '카모메츠토(갈매기 츠토)' 또는 '세키레이츠토(할미새 츠토)'라고도 불리고 있다. '카모메츠토'는 경사가 약간 느슨하고 '세키레이츠토'는 급격히 짧아진다. 상투에는 일부러 기교를 부리지 않고, 꺾어서 구부려서 얽은 형태가 되어있다.

장식도 붉은 치리멘에 얇게 선을 넣어서 둥글게 감친 것과 빗, 칸자시를 쓰는 정도로, 화려하게 꾸미는 일은 거의 없다.(그림 20)



[그림 19] 오카지(お梶)



<그림20> 하루노부후우시마다(春信風島田)

4.3 후기(AD약1763~1867)

앞머리는 중기 이후 조금씩 높아져서, 귀밑머리는 중기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었지만 교토(京都)의 기온 거리에서 明和(AD1764~1772)경에 시작된 등롱빈 처럼 좌우로 힘껏 잡아당기는 경향을 보이며, 중기의 츠토는 쑥 내민 형태이며 후기에는 전혀 내밀지 않고 귀밑머리를 크게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옮겨간 것이 특징이다.

(1) 아오이츠토츠부마게(葵鬘つふ鬘)

이 머리는 궁정의 시마다에 해당하는 것인데 견습 여관(女官)들의 마게라고 불리고 있다. 원래 이 머리모양은 에도 막부의 '시마다'에서 옮겨온 머리모양답게, 타보가 접시꽃의 잎과 닮았기 때문에 '아오이츠토'(접시꽃)라고 불린다.

(2) 카타하즈시(片はずし)

[그림 21]은 유명해서 일반에는 궁녀라고 하면 카타하즈시 즉 머리를 뒤로 묶어, 고리를 만들어 비녀로 고정시키고, 고리의 한쪽을 벗겨 놓은 머리형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라고 한다. 연극에서는 카부키극 중의 하나인 '伽羅先代萩'(메이보쿠센다이하기)의 마사오카(인명-政岡), 重の井, 岩藤 역시 이 머리모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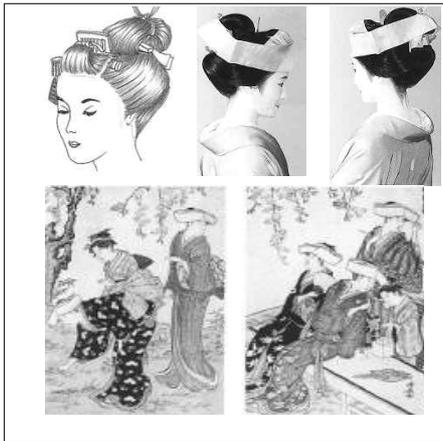


[그림 21] 카타하즈시(片はずし)

(3) 시마다마게(島田髷)

마게는 교토풍 시마다로 묶고, 전두부에 흰 명주모자를 쓴다.(그림22)

여자가 외출할 때에는 옛날부터 장옷이 이용되었지만 에도시대이후 시가지에서는 장옷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약식으로 모자를 머리위에서부터 쓰거나 전두부에 썼었다. 그리고 착용자의 연령에 따라 각종 형식의 모자를 착용했다.(南 登美子, 2003, p142)



[그림 22] 시마다마게(島田髷)



[그림 23] 유이와타(結綿)

(4) 유이와타(結綿)

‘즈부시시마다’에 카노코(鹿の子)라는 홀치기무늬의 한 가지를 사용한 것으로, ‘즈부시시마다’는 에도나 교토, 오사카에 구분 없이 널리 유행했던 머리 밑동이 낮은 시마다마게이다.(그림 23)

5. 결론 및 제언

일본의 문화는 자기와 타인, 인간과 자연과의 경계를 막연하게 미확정된 상태로 남겨두고 우아함, 고상함, 유연함, 덧없음, 여유로움 등에 깊은 공감을 느끼게 한다.(杉本正年, 1995) 특히 일본 에도시대 전반의 미의식은 사비(さび), 와비, 가루미, 시오리로 대표되는데 이는 내·외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아담하고 한적한 미와 품위를 중시한 것이다.

이러한 미의식은 화장을 통해 여성들의 화장법과 두발양식에도 적용되었는데, 특히 화장술은 문화의 내부 원인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의 문화가 서로 교차할 때, 이문화의 미의식에 영향을 받아, 미추의 기준이나 화장법이 변화하는 현상도 드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에도시대 화장법은 화장하는 개인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순서는 크게 씻기, 면도, 손발톱정리, 머리 묶기, 백분 바르기, 흑치물들이기로 이루어졌다. 특히 흑치물들이기는 고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 독특한 미의 기준이 국가 간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에도시대는 일본의 전통적 두발양식이 결정된 시기로 그 의미가 있으며, 각자 취향에 따라서 그 경향을 선택하고, 또한 다양한 양식과 특수한 형태를 고안해 내어 이를 다시 통일된 공동의 양식으로 유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에도시대의 두발양식은 전(前) 시대에 비해 그 형태가 화려해지고 다양한 장신구를 사용하는 등 많은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후기로 갈수록 미세한 부분까지도 차이를 두어 치장하였는데 이들의 형태를 잘 파악함으로써 복식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정된 사료를 통해 연구된 것으로 더 많은 시각적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던 점에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문헌자료 및 시각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17-18C 한·중·일 3개국의 화장법과 두발양식이 비교·연구된다면 동아시아의 발형과 화장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고경숙.(2004). 조선과 에도시대 두발양식 및 화장비교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張競.(2004). 미녀란 무엇인가, 서울:뿌리와 이파리
- 이경선 외.(2003). 한국과 중국 여성의 화장문화에 나타난 연지 화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 예술학회지, 4(2)
- 이연식.(2009).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서울:아트북스
- 무라사와 히로토.(2010). 송태욱 역, 미인의 탄생, 서울:너머북스
- 코이케 미츠에, 노구치 히로미, 요시무라 케에코 著 (2005.) 일본복식사와 생활문화사, 서울:어문학사
- 九鬼周造.(2001). 이윤중 역, 이키의 構造, 서울:도서출판 한일문화교류센터
- 尾川正二.(1999). 김학현 역, 일본고전에 나타난 미적 이념,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일본학연구소, 서울:소화출판
- 陶 智子.(2005). 江戸美人の化粧術, 東京:講談社
- 大原梨恵子.(2000). 黒髪の花文史, 東京:築地書館株式会社
- 久下司.(1992). '化粧', 東京:法政大學出版局
- 衫本正年(1995), 문광희 역, 동양복장사논고, 서울:경춘사
- 南 登美子(2003), 日本の髪型,, 京都:光村推古書院